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1-50
<https://doi.org/10.29212/mh.2023..12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백제의 관방체계와 도기동 산성*

장수남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사

- 목 차
1. 머리말
 2. 한강 이남 관방체계의 특징
 3. 안성천 유역의 관방체계와 도기동 산성의 초축
 4. 도기동 산성의 역할과 가치
 5. 맺음말

초 록 도기동 산성은 4세기 후반에 백제가 초축한 산성을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한 이후 남진하면서 고구려가 재 활용하였다는 것이 그동안의 주된 논지였다. 이 글은 백제사의 입장에서는 왜 도기동 산성을 초축하게 되었는지, 백제의 입장에서 산성의 역할과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안성천 유역 관방체계 중 하나인 도기동 산성의 초축 시기를 문헌사와 연결해 보면 근초고왕 28년(373) 독산성민들의 신라 이주 기사가 주목된다. 백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기동 산성의 축조 목적은 새롭게 지방 지배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주가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3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한 거점성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길성리 토성의 폐기와 독산성주의 투항으로 백제가 소근산성의 축조와 함께 새로운 지방지배의 거점성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에 있어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인 요충지로 웅진으로 내려가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둘째, 도기동 산성은 구릉성으로 주변에 평야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도기동 산성은 남방 진출을 위한 거점성이었다.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 유역에서 철기 출토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이 방어 상 중요한 요충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철기지에서 생산된 철은 각 거점의 관방 시설에 공급되어 철제품이 바로 유통되었는데, 안성천 유역에 위치한 도기동 산성은 거점 관방시설로서 철제품이 공급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 백제, 고구려, 도기동 산성, 관방체계, 교통로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12, 게재확정일 : 2023. 11. 23.)

1. 머리말

고대 교통로는 지형과 수계에 의해 형성된다. 한성시기 백제의 가장 중요한 교통 루트는 몽촌토성·풍납토성에서 탄천을 따라 남하하다 분당-신갈-오산-평택·안성으로 이어지며, 이들 주변에 한성시기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일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안성과 천안으로 연결되는 이 루트는 백제가 남방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¹⁾ 특히 도기동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안성천 유역은 곡교천과 함께 중서부지역의 취락·분묘·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안성천 외곽은 높지 않은 산지가 둘러싸여 있고 내부는 천변을 중심으로 낮고 평평한 구릉과 충적지대가 잘 발달되어 있다.²⁾

백제의 관방체계 연구는 주로 한성시기에³⁾ 집중되어 있다. 한성시기 백제 유물이 출토된 성곽을 중심으로 이 시기 교통로와 관방체계를 구성하여 초기에는 성으로 들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한 교통로의 차단에서 후기에는 대규모 전투의 수행목적으

1) 이남규·권오영·문동석, 「경기 남부 백제유적의 분포양상과 역사적 의미」, 『백제 연구』 4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106~127쪽.

2) 박경신, 「안성천 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마한 세력의 동향」, 『고고학』 20-3, 2021, 33쪽.

3) 웅진·사비기가 되면 백제의 관방체계는 백제 고지 전역에 걸쳐 산성이 확인되는데, 성벽의 둘레가 200~300m의 소규모에서부터 1,000m 이상의 대형산성까지 확인되며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자리 잡은 성들이 험한 산봉으로 입지가 변해가고 있다. 『한원』에 구체적으로 5방성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백제 산성의 입지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서정석, 「웅진·사비기 백제 산성」, 『백제의 산성』, 한성백제 박물관, 2019, 224~226쪽)

로 거점성을 중심으로 관방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⁴⁾ 시기를 4세기로 한정하여 관방체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백제가 경기도 일대에 배치한 산성들만을 토대로 한성 백제의 관방체계를 살펴본 것으로 도성 방어를 위한 관방체계를 4차까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2·3·4차까지 관방체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북방 영역 일부와 동쪽 영역에 대한 관방체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⁵⁾ 최근에는 가시권역, 교통로, 입지 분석 등 지리·지형적 정보를 활용하는 GI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한성시기 관방 유적을 검토한 연구가 있는데 이를 통해 관방유적의 특징을 정리하고, 특히 한성시기 백제의 석성에 대해 GIS 분석을 통해 관방유적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백제의 관방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⁶⁾

직접적으로 도기동 산성을 다룬 연구는 주로 고고학 발굴 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도기동 산성의 성벽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구려의 남방 경략 과정에서 거점성 역할을 하며, 고구려의 남진 경로 및 한강 이남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산성으로 설명하고 있다.⁷⁾ 한편, 도기동 산성의 발굴이 성벽구조에 대한 연구만 한 차례 진행되

4) 오강석, 「백제 한성기 관방체계 검토」, 『선사와 고대』 26, 2007.

5) 강형용, 「4세기 한성 백제 관방체계 연구」,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중부고고학회, 2008.

6) 이승우,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의 성곽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 이승우·양시은,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 관방체계 연구」, 『고조선단군학』 49, 고조선단군학회, 2022.

7) 김진영, 「안성 도기동 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8, 고구려발해학회, 2017 ; 신광철, 「아차산 보루군의 변천사와 고구려 남진경역」, 『고구려발해연구』 63, 고구려발해학회, 2019 ; 양시은, 「안성 도기동 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중원문화연구』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21 ; 장종진,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部曲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탐구』 4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있을 뿐 유적 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재고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도 있다.⁸⁾

그리고 마한과의 관계에서 도기동 산성을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마한세력의 북속 과정에서 웅천 지역에 주목하여 백제가 도기동세력을 북속함으로써 웅천 주변을 장악하면서 4세기경에 도기동이 거점성으로 변화했음을 살펴보았다.⁹⁾ 뿐만 아니라 삼국의 정세 속에서 도기동 산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주목한 연구도 있다. 백제가 3~4세기 영역확장과정에서 안성지역을 북속하여 도기동 산성을 축성한 것으로, 위천 전투에서 승리한 백제가 한성을 수복하면서 도기동 산성을 백제가 다시 운용한 것으로 보고 도기동 산성의 축조 목적과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¹⁰⁾

기존의 도기동 산성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사에서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한성을 함락시킨 후 남진을 위한 거점성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그 근거는 성벽의 구조와 축조 방식 그리고 약간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점유한 시기로 설명되고 있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지만, 한성을 재건하고자 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남진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면 백제는 이 산성을 왜 초축했으며,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함께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내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이나 주거지가 현재

8) 서정일, 「도기동 산성 성벽구조에 대한 재고(再考)」, 『안성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 학술심포지엄 - 백제와 고구려의 만남』, 안성시·기남문화재단연구원, 2020 : 「안성 도기동 산성의 조사성과와 과제」, 『안성 도기동 산성의 보존과 활용』, 안성시·별터건축사사무소·기남문화재단연구원, 2021.

9) 이부오, 「3세기 후반 4세기 초 백제의 마한 진출과 熊川 주변 세력」, 『한국고대사 탐구』 2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8.

10) 황보 경, 「3~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 산성」, 『東洋學』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로서는 많지 않아 얼마의 병력이 주둔했었는지를 비롯하여 고구려인들이 조영한 고분에 대한 것도 연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기동 산성은 앞으로 백제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기동 산성은 한성 백제인들이 초축하여 이용한 성으로 청원 남성골 산성과 대전 월평동 산성과 같이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성이기도 하지만, 백제의 관방체계 안에서 살펴보면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역할 및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강 이남 백제 관방체계를 살펴보고, 백제사에서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의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관방체계로서 안성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백제가 도기동 산성을 축조하게 된 목적과 시점을 문헌사와 연결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백제의 입장에서 도기동 산성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기동 산성은 고고 자료는 있지만 문헌 사료가 뒷받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이 글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주고, 그동안 주로 고구려사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도기동 산성을 백제사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한강 이남 관방체계의 특징

백제의 한성시기 관방체계는¹¹⁾ 풍납토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

11) 관방체계 연구에 있어 최근에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체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관방유적을 살펴보기도 하였다(이승우, 「GIS를 활용한

이었다. 관방 유적의 축조목적은 인근지역이나 교통로를 우위적 수준에서 감시하고 이에 대한 통제와 방어를 하기 위함이다.¹²⁾ 한강 이남의 백제 성곽은¹³⁾ 주변에 하천이 위치하고 기본적으로 토축이다. 도기동 산성만 목책과 토축이 같이 보이고 있다. 한강 이남의 관방 유적을 입지로 분류해보면 평지성, 구릉성, 산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평지성은 풍납토성이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에 비해 해발이 30m 정도 차이가 나서 낮은 구릉 입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구릉성은 안성 도기동 산성, 충주 탄금대 토성, 평택 봉남리 산성, 화성 한각리성, 화성 은평리성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능선에 입지하고 있다. 평지성은 구릉과 산에 있는 성곽보다 가시권역이 넓지 않다. 하지만 평지성은 하천에 인접한 곳에 있다. 이는 수로를 이용한 교통의 편리성 외에도 관방으로서 부족한 방어력을 보강하고자 했다. 평지성은 내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중심지적인 성격이 강하고 주변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의 왕래와 물자의 수송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방어적인 목적보다는 대민(對民)의 성격이 강하다. 한성시기 도성인 풍납토성이 평지에 축조된 것은 치소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구릉성은 상대고도 10~60m 미만의 구릉에 위치하는 것이다.

한성기 백제의 성곽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5쪽). 이승우는 GIS 분석이 성곽 유적의 지리적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시기는 다르지만 유적 내에서 한성기 유물이 출토되는 성곽은 분석을 통해 한성기 백제의 관방 유적일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 12) 이관섭, 『백제 교통로의 고고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3) 백제 한성시기 성곽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15개로 모두 토성이다. 그러나 이천 설성산성과 설봉산성 및 경기지역의 일부 신라 석축성에서 한성시기 백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한성시기에 석성이 축조되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1~4쪽에 쓰여 있다. 필자는 석성 내에서 백제의 한성시기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성은 백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시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이승우의 견해에 동의한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과 직선거리 1km 정도로 매우 인접하며 가시권역이 공유되고 있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의 취약한 방어력을 보완하고 중심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다.¹⁴⁾ 구릉성은 주요 거점성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탄금대 토성은 유적 내에서 용해로와 단야로, 슬래그, 철정 등 제철 및 제련과 관련된 자료들이 확인된다.¹⁵⁾ 유적 주변에는 제철 유적이 분포해 있어 이 일대를 중심으로 제철 공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탄금대 토성이 철기의 제작과 보급을 총괄하던 주요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⁶⁾ 구릉성은 평지성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주변 성곽들의 분포로 볼 때 지방 거점성으로 사용되었다. 이 성들은 독립 구릉이나 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주변에 넓은 평야가 조망되어 방어하기 좋으며, 평지성과 마찬가지로 물자의 운송과 대민업무를 보기에 수월할 뿐만 아니라, 탄금대 토성처럼 철기의 제작과 유통의 거점으로 활용되거나 치소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컸다.¹⁷⁾

산성은 상대고도 60m 이상의 산지에 입지한 성이다. 백제의 산성은 이천 효양산성, 화성 길성리 토성, 소근산성, 음성 망이산성, 천안 동성산성, 증평 추성산성 등이 있다. 산성은 주변 지형보다 월등히 높은 곳에 입지하여 주변 동향을 파악하기 쉽다. 또 방어 상 중요한 곳에 의도적으로 배치하거나 산성과 산성과의 거리를 멀지 않게 두어 서로 조망이 가능하게 하고, 가시권도 공유하여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도 한다. 또는 교통로의 통제를 견고히 하고자 산성을 축조하기도 한다.¹⁸⁾

14)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97쪽.

15) 중원문화재연구원, 『忠州 彈琴臺土城 I』, 2009.

16)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33~34쪽.

17) 이승우·양시은, 앞의 논문, 2022, 101~102쪽.

18)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97~101쪽.

〈표 1〉 백제의 한강 이남의 관방유적

번호	명칭	입지	주변하천	비고
1	이천 효양산성	산성	북하천	토축
2	화성 길성리토성	산성	황구지천	토축
3	화성 소근산성	산성	진위천	토축
4	안성 도기동 산성	구릉	안성천	목책·토축
5	음성 망이산성 내성	산성	청미천	토축
6	충주 탄금대토성	구릉	남한강	토축
7	천안 동성산성	산성	광기천	토축
8	증평 추성산성	산성	보강천	토축
9	의왕 모락산성	산성	안양천·학이천	토축·석축
10	이천 설봉산성	산성	북하천	석축
11	인천 설성산성	산성	청미천·양화천	석축
12	안성 죽주산성	산성	죽산천·청미천	석축
13	충주 장미산성	산성	남한강	석축
14	평택 무성산성	산성	발안천·안성천	토축
15	평택 자미산성	산성	발안천·안성천	석축
16	평택 백봉리산성	산성	진위천·관리천	토축
17	평택 봉남리산성	구릉	진위천	토축
18	청주 부모산성 제 1보루	산성	미호천	석축
19	화성 한각리성	구릉	서해·어은천	토축
20	화성 운평리성	구릉	서해·어은천	토축

* 〈표 1〉은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11~12쪽의 표를 토대로 내용을 재편집한 것이다.

한강 이남의 관방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 백제 토기가 출토되어 어떤 형태로든 점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화성 길성리토성에서는 한성시기 후반에 형성된 백제 토기로 완과 중복 타날 된 회청색 경질 호가 출토되었다.¹⁹⁾ 화성 한각리성은 평탄지대에서 백제 타날문토기편이 다량으로

19) 충북대학교 박물관, 『화성 길성리 토성Ⅱ』, 2011.

수습되었다. 화성 운평리성은 성내 경작지에서 백제 타날문토기 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안성 도기동 산성에서는 산성 내부의 수혈유구와 토루 성토층에서 한성백제기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파배, 고배, 개배, 삼족기, 단경호, 장란형 토기 등이다.²⁰⁾ 안성 죽주산성은 내성, 중성, 외성으로 이루어진 3중성 구조로 중성-외성-내성 순으로 축조되었다. 이 중 중성이 삼국시대 성으로 중성의 초축 성벽 기단부와 암반층에서 백제 토기가 수습되었다. 안성 진사리 산성에서는 백제 타날문 토기류와 심발형토기류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²¹⁾

음성 망이산성은 토축성 내부에서는 호류, 용류, 굽접시, 병, 시루, 뚜껑, 대접, 단지 등 다양한 백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²²⁾ 천안 동성산성은 산성 내 주거지와 퇴적층에서는 한성백제기에 해당하는 심발형토기, 용형 토기, 용류, 호류, 병류,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²³⁾ 증평 추성산성은 남성과 북성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백제 토기로 호류, 용류, 유개대부호, 발, 장란형 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완, 뚜껑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²⁴⁾ 의왕 모락산성은 대부분 한성백제기로 편년되는 호류, 용류, 심발형토기, 장란형 토기, 저장 및 생활 용기 등이 출토되었다.²⁵⁾

이천 설봉산성은 토기의 경우는 백제 양식과 신라 양식이 공반 되어 출토되고 있다. 특히 I 지구 4호 토광에서는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으며, 성벽 내부와 유구 전반에 걸쳐 백제 토기가 수습되었다. 백제 토기의 기종은 삼족기, 장란형 토

20) 기념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 산성』, 2018.

21)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안성천Ⅳ』, 2003.

22)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望夷山城 發掘 報告書(1)』, 1996.

23) 가정 고고학연구소, 『天安 銅城山城 試掘調査: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2016.

24) 증평문화재연구원, 『증평 추성산성 -북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2014.

25) 세종대학교 박물관, 『의왕 모락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6.

기, 심발형토기, 고배류, 접시류, 호류, 옹류 등이다.²⁶⁾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는 것은 백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와는 신라의 기와이므로 백제와 신라가 사용한 시기의 성의 용도는 분명히 다르다. 이천 설성산성은 주거지 부뚜막 시설 주변과 토광에서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성 안에서 호류, 삼족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고배, 개배, 접시, 완, 동이, 시루 등이 확인되었다.²⁷⁾

충주 장미산성에는 조족문 토기와 원저단경호를 비롯한 다량의 백제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 조족문 토기는 음성 망이산성, 이천 설봉산성, 설성산성, 청주 신봉동 유적, 증평 추성산성 등 한성시기 백제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3~5세기 후반에 걸쳐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것으로²⁸⁾ 이는 백제가 방어성으로서 이들 산성을 활용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택 자미산성은 산성 내에서 한성기 토기로 호류, 옹류, 고배, 삼족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등의 기종이 확인되었다.²⁹⁾ 평택 무성산성에서는 대부분 무문토기편을 비롯한 백제 초기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평택 백봉리 산성에서 무문토기와 타날토기가 수습되었고 한성 백제기의 대옹편이 수집되기도 하였다. 평택 견산리산성에서는 백제 타날문토기편, 회색 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평택 봉남리산성은 본성, 익성, 아곡마을, 산성 구역으로 구분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보이는데 본성과 익성구역에서 백제토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대옹, 호류,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등 다양한 기종 구성을 이루고 있다.³⁰⁾

2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1.

2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성산성 2·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4.

28)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56쪽.

2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평택 서북 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30) 경기도 박물관, 『평택 관방유적Ⅱ』, 2004.

청주 부모산성은 산성과 보루가 결합한 구조로 제1보루 토축 성벽 상부에서 백제 토기가 수습되었다. 대부분이 한성시기에 해당하는 호류, 용류, 뚜껑, 대부완, 시루, 전달린 토기편, 등이 등이 확인되었다.³¹⁾ 이로 인해 제1보루는 부모산성의 석축성벽이 축조되기 이전에 한성시기 백제에 의해 먼저 축조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²⁾

즉, 백제의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에 해당되는 성들에서는 모두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성들이 모두 토성인 것은 아니며 산성의 구조와 축조 기법으로 볼 때 백제의 성으로 보지 않기도 하지만 한성시기 백제 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방어 및 교통로의 중요한 요충지에 성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가 축조하기 이전에 백제가 방어시설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요 교통로에 성을 배치하여 교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방체계를 형성하여 백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천을 끼고 있는 경기지역의 관방체계 중에서 평택 백봉리 산성은 진위천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넓은 평야지대를 조망할 수 있고, 북쪽에 화성 길성리 토성과 소근산성이 자리 잡고 있어 길성리토성-소근산성-백봉리산성으로 이어지는 진위천 하천 교통로는 백제 남부 진출의 주요 길목이었다. 길성리토성은 요리와 길성리 일대의 해발 100m의 구릉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성이다. 성의 남쪽은 황구지천과 진위천의 합수지점 부근의 충적평야가 동쪽으로는 황구지천과 진위천 주변의 충적평야가 한눈에 조망된다. 즉, 성은 남쪽 오산과 평택 일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³³⁾

소근산성은 소근산 능선 남단에 토축으로 축성된 산으로 성의

31) 충북대학교 박물관, 『청주 부모산성Ⅱ』, 2016

32)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55~65쪽.

33) 정인숙, 「화성 향남면 길성리토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동쪽에 진위천이, 서쪽으로는 관리천이 각각 남류하여 소근산성의 남동쪽 약 11km 지점에서 합류하여 안성천으로 유입된다. 남쪽과 서쪽 그리고 동쪽에 큰 하천을 끼고 형성된 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서쪽과 남동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성이 축조되었다.³⁴⁾ 이천 설성산성은 차령산맥에서 가장 근접한 산성으로 산맥을 통해 넘어오는 적들을 가장 먼저 관측할 수 있고, 설봉산성은 광주산맥을 넘으면 한강 유역에 도달할 수 있는 최단루트이다.³⁵⁾ 죽주산성은 이천을 거쳐 안성으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광주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부모산성은 안성천 유역에서 병천천을 따라 차령산맥을 넘으면 바로 마주할 수 있으며 청주분지로 가기 위한 길목으로 청주분지는 넓은 곡창지대로 풍부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설성산성, 설봉산성, 죽주산성, 부모산성은 북쪽과 서쪽을 관방할 수 있고, 남쪽으로 미호천을 따라가면 금강수계를 만나 호남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제는 이들 산성을 관방체계로 활용했을 것이다.

동쪽으로는 장미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장미산성은 높은 산지에 입지하여 주변일대와 남한강에 대한 조망이 용이하고, 한강의 수로와 안성천을 따라 경기지역으로 향하는 내륙교통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동쪽은 다수의 성곽을 북에서 남으로 일자 배치하여 방어를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거점으로 가시권역이 서쪽과 남쪽을 향해있는 의왕 모락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안양천과 안성천의 지류인 황구지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한강유역에서 안성천 유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길목으로 남방 진출의 관방이다.³⁶⁾

34) 김길식, 「산성·주변유적의 관계와 지방지배-화성지역 백제 산성과 주변 유적 사례를 통하여-», 『백제의 산성』, 한성백제 박물관, 2019, 245쪽.

35)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105쪽.

36)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75~93쪽.

성에 있어 고도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도가 낮을수록 주변 지역에서 접근이 쉬워 방어적인 성격이 약해지지만, 행정 치소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도가 높을수록 유적 내부로의 접근이 어려운 탓에 방어가 주목적이었다.³⁷⁾ 상대고도가 높은 백제의 산성은 이천 효양산성, 화성 길성리 토성, 소근산성, 음성 망이산성, 천안 동성산성, 증평 추성산성 등이 있다. 이들 성곽은 산지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을 조망하여 적을 동향을 살피기에 유리하다. 이곳들은 교통로를 감시하거나 군사적인 역할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천-음성-증평으로 이어지는 산성 반경 5km 내에는 조망권을 막는 것이 없다. 이들 산성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는 평야가, 동쪽지역에는 광주산맥과 차령산맥이 이어지고 있다. 일자로 배치한 산성은 중원지역을 방어선을 견고히 하여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소근산성은 한강-수원-오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한강유역에서 황구지천과 진위천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천안의 동성산성은 경기 또는 서해 연안에서 호서 내륙으로 진입하려면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교통로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축조한 것이다.³⁸⁾ 산성뿐 아니라 관방유적을 통해서도 교통로 차단으로 방어에 주력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천 설성산성-설봉산성-안성 죽주산성-청주 부모산성으로 이어지는 관방유적은 산성과 마찬가지로 교통로의 감시와 차단으로 방어가 목적이었다.

셋째,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 및 진출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관방은 서남쪽에 집중되어 있다. 동쪽에 관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산지가 발달하여 자연적인

37)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73쪽.

38) 이승우·양시은, 앞의 논문, 2022, 102~103쪽.

방어막이 형성되어 조밀하게 관방을 설치하지 않았다. 즉, 차령 산맥과 광주산맥이 자연 방어선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경기도 서쪽 지역에 관방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서쪽은 평야와 하천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관방을 조밀하게 설치해야만 방어가 가능했다.³⁹⁾ 이 일대의 성들은 동서 방향의 횡선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성들과의 거리는 5~7km이다. 안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배치된 성들은 중앙이 직접 지배하는 영역 내에 관방을 직접 설치하여 방어에 주력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급로의 확보와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관방이 설치된 곳은 주변에 하천과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식량수급이 용이한 곳이라는 것이다. 백제의 거점성이 경기지역 서남부에 집중된 것은 한성 함락 후 고구려가 도기동 산성을 재활용한 것과도 연계된다. 고구려가 도기동 산성을 재활용한 것은 성이 남진을 위한 거점이자 식량 수급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넷째,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물자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백제의 관방체계에서 화성지역의 운평리, 한각리, 화산리, 조암리 일대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편이 출토되어 백제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운평리와 한각리 성은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유적이 확인되고, 백제토기가 넓게 산포하고 있어 토성을 중심으로 대단위 유적군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특히 한각리성과 운평리성은 아산만의 북쪽 입구이다. 북쪽으로 한강 유역이 이어지고 동쪽으로 평택이 있다. 또 이곳을 거치면 서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기동 산성과 성산리 산성이 있다. 주변 지형보다 비교적 높은 지점에 위치한 한각리성과 운평리성은 화성 일대의 행정과 아산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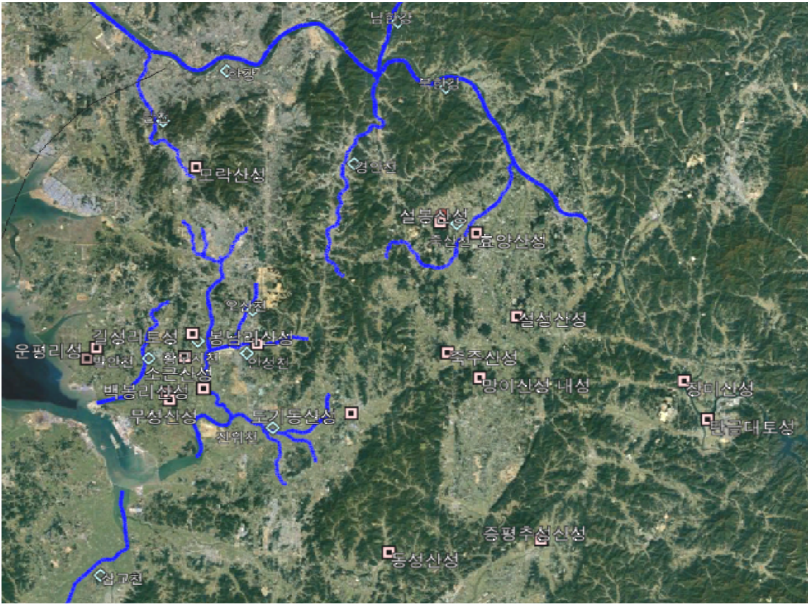
39) 강형웅, 앞의 논문, 2008, 24쪽.

40) 김길식, 「경기남부지역 원삼국 문화의 특징과 의의-화성지역을 중심으로」, 『화성 지역 고고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제10회 화성시 학술세미나.

자의 유통을 담당했던 거점이었다. 또 탄금대토성은 철기의 제작과 보급을 총괄하던 주요 거점이었다. 즉, 백제의 관방체계는 백제 수취기반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한성시기를 지나 웅진시기에 백제가 한강유역을 재건할 때에도 경기지역 관방체계 성들은 수취기반 복구의 물류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평지성은 대민 지배나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치소나 거점의 역할을 하였고, 구릉성은 교통로의 감시와 경작지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산성은 적들을 견제하고 거점 방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백제의 관방체계는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한강 이북의 성들이 북쪽의 고구려, 낙랑, 말갈의 침입에 주력한 관방체계였다면, 한강 이남 특히 경기 서남부의 관방체계는 교통로에 성을 배치하여 교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방체계를 형성하여 백제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성으로서 관방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하천을 끼고 평야지대의 풍부한 생산량은 물류 거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림 1) 한강 이남 관방 유적



3. 안성천 유역의 관방체계와 도기동 산성의 초축

안성천에 축조된 관방 유적은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산이나 구릉에 축조된 산성은 교통로를 통제하는 안성천 일대 특유의 관방체계였다. 안성천은 용인에서 발원하여 아산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고지대가 적고 비교적 평탄지가 많다. 차령산맥에서 안성시 공도면을 거쳐 한천과 미양면에서 합류하여 평택에 이르러 평야지대를 형성하여 농경지가 발달하였다.⁴¹⁾ 뿐만 아니라 도기동 산성의 가시권을 보면 북쪽의

41) 강형욱, 「4세기 한성백제의 관방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20~21쪽.

안성천에 매우 인접하며 안성천과 지류들을 따라 넓게 형성된 안성평야 일대에 대한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 안성지역은 북쪽으로는 한강수계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내륙지방, 남쪽으로는 천안을 지나 금강수계로 진출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안성천을 따라 아산만과 서해 연안으로 연결된다. 도기동 산성은 경작지와 교통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⁴²⁾

안성천 유역의 관방 유적 도기동 산성은 안성 분지의 중심에 위치하여 백제 한성시기인 4세기 무렵에 초축되어 6세기 전반 무렵까지 활용된 백제-고구려 연속 조영의 목적성이다. 도기동 산성은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결과⁴³⁾ 4세기 중후반 무렵에서 5세기 초반에 초축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성 내에서는 파배, 고배, 개배, 삼죽기, 단경호, 장란형 토기 등 한성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도기동 산성과 동일시기로 4~5세기에 해당하는 도기동 고분군 확인되었다. 고분군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는 동일 지형에 분포한 동일 성격의 고분군으로 도기동 산성 주변에 136기의 대단위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고분군의 조성연대는 부장유물 단경호, 심발형토기, 직구호, 방추차, 환두대도, 철모, 철부, 재갈 등이 출토되어⁴⁴⁾ 미호천 수계인 청주 봉명동, 송대리 유적의 늦은 단계와 청주 신봉동, 천안 용원리 고분군과 공존하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대에 걸쳐 조성된 것이다.⁴⁵⁾ 이는 백제가 안성천 일대를 백제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거점의 치소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기동 고분군의 환두대도, 철모 등

42)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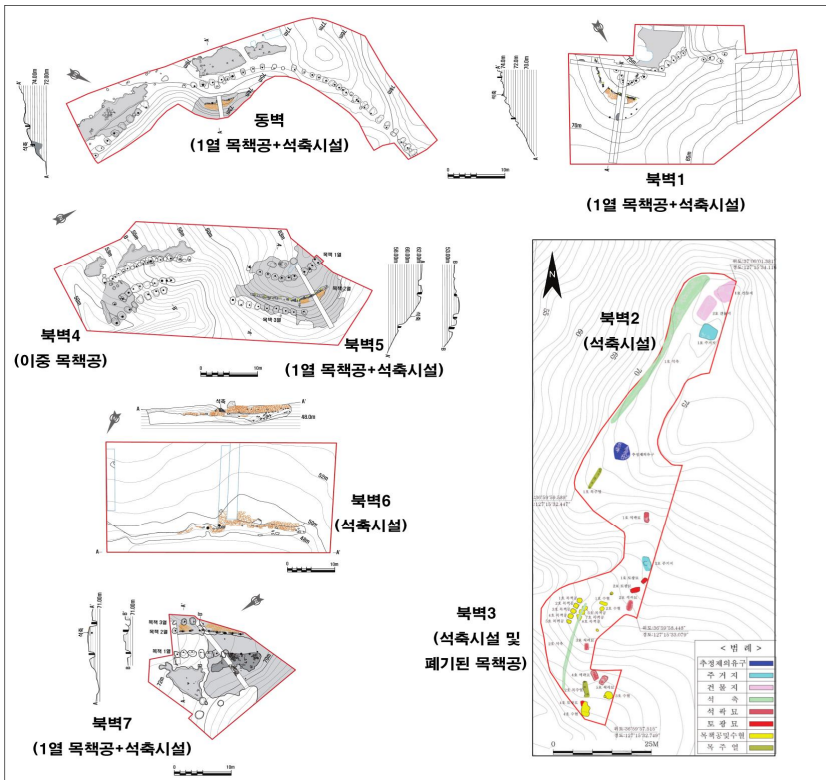
43)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도기동 산성』, 2018.

44)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 산 11번지 일원 공장 및 교육연구시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집』, 2016.

45) 이동성, 「안성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안성 도기동 산성의 보존과 활용』, 2020.

의 무기류와 재갈 등의 마구류 출토는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한 이후 4세기 중후반경부터는 상당한 세력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46) 또 대규모의 고분군이 조성된 것은 주변의 평야지대에는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분군 조영을 통해 볼 때 도기동 산성 주변은 방어를 위한 산성과 취락 그리고 저장시설인 수혈이 분포하고 있어 백제의 지역 거점성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안성 도기동 산성 내 고구려 목책성 관련 유구 현황도



* 서정일, 2020, 앞의 논문, 30쪽 〈그림 29 재인용〉

46) 누리고고학연구소, 『안성 도기동 산 18번지 유적』, 2017, 186~190쪽.

도기동 산성의 성벽 구조를 살펴보면 북쪽 구역에 1·4·5·7 구역 4구간이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는데 내부에 수혈과 주거지, 건물지 15기가 확인되었다. 성벽의 급경사면은 자연 지형을 방어벽 삼아 외출 목책 시설이 보이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은 이중 목책이 확인되었다.⁴⁷⁾ 성벽은 백제 한성시기 초축 성벽과 고구려가 보강하여 사용한 성벽으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중 목책의 구조이다. 이 목책의 구조가 내부에 성토를 다지고 외부에는 석축을 덧대어 보강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고구려 남진기 목책성 특징으로 청원 남성골산성과 연천 무등리 2보루의 성벽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다.⁴⁸⁾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열 목책(목책성)이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석축 성벽과 2열 목책(목책성)의 중복관계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고구려 토기는 석축 성벽과 관련된 층에서만 출토되었다. 따라서 한성시기는 토루 1과 목책성(1열 및 2열 목책포함)이며, 고구려가 축조한 것은 석축 성벽임이 밝혀졌다.⁴⁹⁾

백제가 초축한 도기동 산성은 목책성이다. 목책은 주변에 수목을 활용하여 적은 인원으로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어 효용성이 뛰어나지만, 화공(火攻)이나 투석전(投石戰)에 약하고, 여름이나 겨울이 지나면서 목책으로 사용된 나무가 부식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장기적인 운영이 어렵다. 그렇지만 삼국시대에는 장기간 목책을 활용하였고, 흙이나 돌을 활용하여 단점을 보강하

47) 서정일, 앞의 논문, 2020, 31쪽.

48) 양시은, 앞의 논문, 2021, 90쪽. 그러나 서정일은 이는 실제 발굴조사와 배치되는 것으로 목책 전체가 이중구조가 아니고 목책 내 성토층이 남아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어서 고구려의 개축흔으로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서정일, 앞의 논문, 2020, 31쪽).

49) 한양문화재연구원, 『안성도기동 산성-안성 도기동 산성(산 57번지 일원) 유적 긴급발굴조사』, 2021, 212쪽.

여 주요 길목마다 목책을 설치하여 통제와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였다.⁵⁰⁾ 백제는 삼국 중에 가장 많이 목책을 설치하였다. 백제가 목책성을 설치한 기사들을 보면 목책성은 국경지대, 군사상의 요충지 또는 교통로상에 통제와 방어를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⁵¹⁾ 백제는 고구려·신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왕성을 중심으로 관방체계를 마련하였고, 이 관방체계의 일환으로 목책성이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문헌사에서 볼 때 백제는 언제, 왜 도기동 산성을 초축하게 되었을까?

도기동 산성이 초축되었을 당시 백제를 침입했던 세력은 고구려와 말갈이다. 백제는 고구려와 말갈과의 전쟁에서 그 규모가 달랐다. 백제는 말갈과의 전쟁에서는 구수왕 3년 가을 8월에 말갈이 적현성을 포위했을 때 말갈을 격퇴시키는데 기병 800명을 거느린 것⁵²⁾ 이외에는 대체로 300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는 근초고왕 24년과 26년 기사를 보면 고구려와의 전쟁은 치양에서 5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정예군사 30000명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⁵³⁾ 무엇보다 당시는 고구려와 공방전을 벌이던 시기로 백제의 입장에서는 북쪽의 관방이 중요했을 시기이다. 도기동 산성의 초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료는 다음의 기사들이다.

50) 황보경, 「삼국시대 木柵에 대한 考察」, 『백산학보』 106, 2016, 183쪽.

51) 황보경, 앞의 논문, 2016, 175~179쪽.

52)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仇首王 3년(216) 8월. “靺鞨來圍赤峴城 城主固拒賊退歸 王帥勁騎八百追之 戰少道城下破之 殺獲甚眾”

53)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년(369) 가을 9월. “高句麗王斯由 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26년(371) 겨울.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失死 王引軍退”

A-1. 가을 7월에 청목령(靑木嶺)에 성을 쌓았다. 독산성(禿山城)의 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돌아왔다.⁵⁴⁾

A-2. 백제 독산성(禿山城)의 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투항해 왔다. 왕이 그들을 받아들여 6부(部)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백제왕이 문서를 보내 말하기를, “두 나라가 화친(和親)을 맺어 형제가 되기를 약속했는데, 지금 대왕께서 우리의 도망한 백성을 받아들이니 화친한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이는 대왕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였다. [내물이사금이] 대답하기를, “백성은 일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들면 오고 싶어지면 가버리니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왕은 백성이 편안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과인을 나무라시는 것이 어찌 이렇게 심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백제는 그것을 듣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⁵⁵⁾

B. 봄에 국내의 15세 이상인 사람들을 징발하여 관방(關防)을 설치하였는데, 청목령(靑木嶺)으로부터 북으로는 팔곤성(八坤城)에 닿고, 서로는 바다에 이르렀다.⁵⁶⁾

C. 가을 8월에 왕이 고구려를 치기 위하여 군사를 내어 한산 북쪽의 목책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큰 별이 군영

54)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28년, “秋築七月 城於靑木嶺 禿山城主率三百人奔新羅”

55)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내물이사금 18년, “十八年 百濟禿山城主率人三百來投王納之 分居六部 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 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之意 非所望於大王也 請還之 答曰 民者無常心 故思則來 數則去 固其所也 大王不患民之不安 而責寡人 何其甚乎 百濟聞之 不復言”

56)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진사왕 2년, “春 發國內人年十五歲已上 設關防 自靑木嶺 北距八坤城 西至於海”

내에 떨어졌는데 큰 소리가 났다. 왕이 매우 꺼려하여 곧 [정벌을] 그만두었다.⁵⁷⁾

A-1과 A-2는 독산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신라로 달아난 기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A-2 신라본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용에 따르면 백제왕이 독산성주와 백제민을 받아들이지 말고 돌려주기를 원하였지만 신라왕이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독산성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⁵⁸⁾ 이때 도기동 산성이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온조왕 11년의 독산책이 나오는데 같은 위치는 아니다.⁵⁹⁾ 온조왕대는 낙랑의 통로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근초고왕대는 독산성주가 신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백제는 독산성민들의 이동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다시 준비했을 것이고, 이때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는 이미 도기동 산성이 있던 안성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안성지역의 지리적인 위치는 북쪽으로는 한강수계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내륙지방, 남쪽으로는 천안을 지나 금강수계로 진출할 수 있다. 서쪽으로는 안성천을 따라 아산만과 서해 연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산성 주변에 평야지대에서는 경작지가 많아 생산량이 풍부하여 수취체계가 안정적일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는 방어에도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산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7)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아신왕 7년, “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師至漢山北柵 其夜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58) 독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삼국사기』 지리지 한주지명에 고구려에서는 매홀(買忽) 수성(水城)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華城市) 봉담면(峰潭面)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40쪽).

59) 성왕 26년 (548) 기사에도 독산성이 나오는데 이곳은 한강 북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의 축조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는 작업이며 관방체계의 구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백제 중앙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 단순한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통로 확보, 지역 집단에 대한 영향력 강화, 물적 자원 수취 등의 행정적 지배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⁶⁰⁾ 도기동 산성은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이 중심시기였던 길성리토성이 4세기 중엽 이후 폐기되면서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이 폐기되면서 취락이 재편되었고 5세기경에는 길성리 토성으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 소근산성이 백제의 중앙으로부터 축조되었다.⁶¹⁾ 독산성주가 신라로 달아났다는 것은 백제 입장에서는 지방 지배의 재편이 필요했을 것이다. 성주가 3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한 거점성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길성리토성의 폐기와 독산성주의 투항으로 백제가 소근산성의 축조와 함께 새로운 지방 지배의 거점성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가능성은 B의 진사왕 2년(386) 관방 설치기사이다. 도기동 산성의 초축 연대에 해당하는 4세기 중후반 기사이다. 삼국사기 기록에서 나오는 첫 관방 기사로 여기서 기준은 청목령이다. 청목령으로부터 관방을 설명하고 있다. 청목령의 위치는 개성, 청석동, 영평 등으로 비정하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팔곤성의 정확한 위치도 알 수는 없지만, 청목령으로부터 북쪽이라 했으므로 북쪽의 관방, 그리고 서쪽의 관방으로 서해 바다를 지칭한 것이다. 진사왕대에는 3년에도 여전히 말갈과 싸

60) 서영일, 앞의 논문, 2005, 23쪽.

61) 한지선, 「백제의 화성·오산 일대 진출과 지역 장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55~58쪽.

왔고⁶²⁾ 5년·6년에도 고구려와 싸우고 있어⁶³⁾ 백제는 여전히 말갈과 고구려에 대해 공격과 방어에 힘을 쏟고 있었다. 또 개로왕 15년 기사에도 청목령에 大柵을 세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책을 세워 북한산성의 사줄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고 한다.⁶⁴⁾ 청목령은 말갈이나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말갈과 고구려를 대비하기 위해 백제는 대책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진사왕 3년에 관미령에서 말갈과 싸웠는데 이곳은 관미성과 관련된 고개로 관미성은 파주 오두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아신왕 2년에는 외삼촌 武에게 관미성이 북쪽 변경의 요해지라고 표현하였다.⁶⁵⁾ 즉 청목령이나 관미령의 위치로 보아 이 시기 백제는 여전히 북쪽 변경에 주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것은 광개토왕 18년(408)의 기사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광개토왕은 가을 7월에 나라 동쪽의 독산 등 여섯 성을 쌓고 평양의 민호를 그쪽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독산성은 고구려의 동남쪽, 백제의 동북쪽일 가능성이 있다. 백제 입장에서 독산성주와 함께 주민이 신라로 도망간 것은 371년 평양성 공격에서 주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독산성 주민들이 전쟁이나 축성 등 고역에 동원되어 그 불만으로 인해 독산성주가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진사왕대의 관방 설치 기사와 연계하여 보면 이 무렵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C는 아신왕 7년(398) 기사로 고구려를 치기 위해 한산 북쪽의

62)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3년(387) 가을 9월. “與靺鞨戰關彌嶺 不捷”

63)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5년(398) 가을 9월. “王遣兵 侵掠高句麗南鄙” ; 辰斯王 6년(399) 9월 “王命達率真嘉謨 伐高句麗拔都坤城 虜得二百人 王拜嘉謨爲兵官佐平”

64)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蓋鹵王 15년(469) 겨울 10월. “葺雙峴城 設大柵於青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65)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393) 가을 8월.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此寡人之所痛惜”

목책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복수의 木柵 생각해 볼 수 있다. 무령왕 7년 기사에서도 고목성 남쪽에 두 책을 세웠다⁶⁶⁾고 하였다. 성과 함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수의 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수왕 4년에 사도성의 방어를 더 강화하기 위해 두 책을 설치한 것이나⁶⁷⁾ 무령왕 7년에 고목성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두 책을 설치한 것을 보아도 한산의 북쪽은 고구려의 방어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복수의 목책이 존재했을 것이다.⁶⁸⁾ 또 백제의 방어를 위해 주요 관방에 남책, 동책, 서책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백제는 고구려의 방어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고고학 자료에서 말해주는 시기에 맞춰보면 근초고왕 28년이 설득력이 있다. 진사왕대의 관방 설치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백제는 독산성 민들의 신라 이동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다시 준비했을 것이고 독산성이 신라와 근접한 곳이었다면 백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는 이미 도기동 산성이 있던 안성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도기동 산성은 가시권이 북쪽의 안성천에 매우 인접하며 안성천과 지류들을 따라 넓게 형성된 안성평야 일대에 대한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 안성지역은 북쪽으로는 한강수계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내륙지방, 남쪽으로는 천안을 지나 금강수계로 진출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안성천을 따라 아산만과 서해 연안으로 연결된다. 산성 주변에는 취락시설뿐 아니라 생산유적·고분군 등이

66)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武寧王 7년(507) 여름 5월 “立二柵於高木城南 又築長嶺城以備鞮鞞”

67)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仇首王 4년(217) 봄 2월. “設二柵於沙道城側 東西相去十里 分赤峴城卒戍之”

68) 필자는 무령왕대에 백제는 한강유역을 회복했다고 보고 있다.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시설의 편년은 4~5세기대로 추정되고 있다.⁶⁹⁾ 산성 + 주거+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백제가 도기동 산성을 초축한 목적은 지방지배의 재편 과정에서 인근의 소근산성과 함께 새로운 거점성으로 축조된 것이다. 성주가 300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백제 입장에서는 지방 지배의 재편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으로 방어 및 경작지의 생산량이 많아 식량 공급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저장시설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거점성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4. 도기동 산성의 역할과 가치

도기동 산성이 백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백제의 목책 설치 목적에 대해 살펴보자. 백제는 고구려·신라에 비해 많은 목책을 설치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목책 설치 관련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D-1. 가을 7월에 마수성(馬首城)을 쌓고 병산책(瓶山柵)을 세웠다. 낙랑태수(樂浪太守)의 사신이 다음과 같이 아뢰어 말하였다. “지난번에는 서로 예를 갖추어 방문

69) 이승우·양시은, 앞의 논문, 2022, 102쪽.

하고, 우호를 맺어 뜻이 한 집안과 같았는데, 지금 우리의 강역을 핏박하여 성을 쌓고 목책을 세우고 있으니, 혹시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계책이 있어서인가? 만일 옛날의 우호를 저버리지 않고 성을 허물고 목책을 부수어 버린다면 시기하고 의심할 바가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청컨대 한 번 싸워서 승부를 결정 짓도록 하자.” [이에] 왕이 회답하였다. “요새를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떳떳한 도리인데, 어찌 감히 이것 때문에 화친과 우호를 저버리는 일이 있겠는가? 마땅히 집사(執事)가 의심할 바가 아닌 것 같다. 만일 집사가 강함을 믿고 군사를 낸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낙랑과의 우호를 잃게 되었다.⁷⁰⁾

- D-2. 가을 7월에 독산책(秃山柵)과 구천책(狗川柵)의 두 목책을 세워 낙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았다.⁷¹⁾
- D-3. 가을 7월에 한산(漢山)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慰禮城)의 민호(民戶)들을 옮겼다.⁷²⁾
- D-4. 가을 7월에 왕이 웅천책(熊川柵)을 세우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나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왔을 때 밭을 디딜 만한 곳도 없었는데, 내가 동북쪽 100리의 땅을 떼어주어 편히 살게 하

70)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8년, “築馬首城 豎瓶山柵 樂浪太守使告曰 頃者 聘問結好 意同一家 今逼我疆 造立城柵 或者其有蠶食之謀乎 若不渝舊好 隳城破柵 則無所猜疑 苟或不然 請一戰以決勝負 王報曰 設險守國 古今常道 豈敢以此 有渝於和好 宜若執事之所不疑也 若執事特強出師 則小國亦有以待之耳 由是與樂浪失和”

71)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1년, “設秃山·狗川兩柵 以塞樂浪之路”

72)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3년,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이제 나라가 완성되고 백성들이 모여들자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성과 연못을 크게 설치하여 우리의 강역을 침범하니, 어찌 의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왕이 부끄러워하여 마침내 목책을 헐어버렸다.⁷³⁾

- E. 봄 2월에 사도성(沙道城) 옆에 두 개의 목책을 설치하였는데 동서로 서로 떨어진 거리가 10리였다. 적현성(赤峴城)의 군졸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⁷⁴⁾
- F. 겨울 10월에 쌍현성(雙峴城)을 수리하였다. 청목령(靑木嶺)에 큰 목책을 세우고,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군사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⁷⁵⁾
- G. 7월 탄현(炭峴)에 목책을 세워 신라에 대비하였다.⁷⁶⁾
- H. 여름 5월에 고목성 남쪽에 두 개의 목책을 세우고, 또 장령성(長嶺城)을 쌓아 말갈에 대비하였다.⁷⁷⁾
- I. 겨울 10월에 웅진성을 수리[修葺]하고 사정책(沙井柵)을 세웠다.⁷⁸⁾

73)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24년, “秋七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其如義何 王慙 遂壞其柵”

74)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구수왕 4년, “設二柵於沙道城側 東西相去十里 分赤峴城卒戍之”

75)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15년, “葺雙峴城 設大柵於靑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76)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23년, “設柵於炭峴 以備新羅”

77)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무령왕 7년, “立二柵於高木城南 又築長嶺城以備靺鞨”

7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4년, “修葺熊津城 立沙井柵.”

백제의 목책 설치 목적은 첫째 방어이다. D-1과 D-2의 기사는 책을 쌓아 낙랑을 방어하는 기사이다. D-1은 온조왕대 마수성과 병산책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성과 목책은 요새에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답하고 있다. 즉 백제가 성과 책을 설치하는 것은 요새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백제가 방어해야 하는 세력은 낙랑과 말갈이었다. D-2의 독산책과 구천책을 세운 것도 낙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 방어하고자 한 것이었다. 온조왕 11년 여름 4월에도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병산책을 습격하였다.⁷⁹⁾ 다루왕 7년 9월에는 말갈이 마수성을 공격하였고⁸⁰⁾, 10월에는 말갈이 또 병산책을 습격하였다⁸¹⁾고 한다. 이 기사들을 통해 볼 때 마수성과 병산책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말갈과 낙랑과의 접경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1의 기사에서 백제가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세우자 낙랑태수의 사자가 영토에 접근한 것에 대해 화를 냈다. 이것은 당시 백제가 성과 책을 세워 영토의 동북쪽을 방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D-3의 온조왕 13년 가을 7월에 한산 아래 목책 설치 기사의 목적도 방어이다. 온조왕 8년 봄 2월에 말갈병 3,000명이 위례성을 포위하였던 기사를⁸²⁾ 통해 짐작해 볼 때 3,000명이나 왔다면 위례성의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례성의 민가를 옮겼다고 할 때 상당한 백제민이 이동했을 것으로 한산 아래 木柵을 세워 많은 수의 민을 이동하였다는 것은 목책

79)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1년(B.C.8) 여름 4월. “樂浪使靺鞨襲破瓶山柵 殺掠一百餘人”

80)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多婁王 7년(34) 가을 9월. “靺鞨攻陷馬首城 放火燒百姓廬屋”

81)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多婁王 7년(34) 겨울 10월. “又襲瓶山柵.”

82)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8년(B.C.11) 봄 2월. “靺鞨賊三千 來圍慰禮城 王開城門不出”

의 설치 목적이 방어를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목적에는 많은 수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온조왕 10년 기사에서 말갈이 북쪽 경계를 노략질하였을 때 군사 200명을 보내 막아 싸우게 하였다는⁸³⁾ 것으로 볼 때 책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의 수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1년의 기사에서도 말갈이 병산책을 습격하여 깨뜨리고는 100여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⁸⁴⁾ 또 구수왕 16년 11월 기사를 보면 말갈이 우곡의 경계에 들어왔을 때 군사 300명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⁸⁵⁾ 백제는 말갈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병사를 동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말갈이 침입한 곳은 위례성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목책일 것이다.

또 E와 F의 기사도 목책 설치의 목적은 방어이다. E의 구수왕 4년 2월 기사에서 사도성 옆에 두 책을 설치하였는데 동서 거리가 10리였다고 하였다. 1리가 0.4km라고 할 때 10리는 약 4km로 가까운 거리이다. 즉, 방어를 위한 책의 설치하는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책은 성의 방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D-1의 온조왕 8년에 마수성과 병산책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마수성의 방어기능을 보완하고자 병산책을 세운 것이다. E의 경우는 사도성 옆에 두 책을 설치하는데 그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은 성과 책들을 통해 방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적현성의 군졸로 나누어 지키게 했다는 것은 사도성 - 두 책 - 적현성의 거리가 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F의 기사는 개로왕대 청목령에 대책(大柵)을 세웠다는 것으로 청목령

83)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0년(B.C.9) 겨울 10월. “靺鞨寇北境 王遣兵二百 拒戰於昆彌川上”

84)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1년(B.C.8) 여름 4월. “樂浪使靺鞨襲破瓶山柵 殺掠一百餘人”

85)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2, 仇首王 16년(229) 11월. “靺鞨入牛谷界 奪掠人物 王遣精兵三百拒之 賊伏兵夾擊 我軍大敗”

이 백제에게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이다. 그 위치는 고구려, 말갈과 관련되어 있다. 청목령에 대책을 설치하기 전 8월에 백제는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쳤다고 한다.⁸⁶⁾ 그리고 그 이후에 대책을 설치한 것이다. 즉,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 북쪽에 대책을 설치한 것이다. 청목령은 온조왕 10년에는 말갈과 싸우면서 청목산에 의지하여 지켰다는⁸⁷⁾ 것으로 보아 말갈의 방어 역할을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의 B의 기사에서 진사왕 2년에 청목령을 기준으로 관방을 세워 청목령이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또 A-1의 근초고왕 28년에는 청목령에 성을 쌓았고, 아신왕 4년에는 왕이 직접 군사 7천을 이끌고 청목령까지 진군했다는⁸⁸⁾ 기사를 통해 백제가 동북쪽을 방어하는데 청목령이 중요한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 기사에서 개로왕이 북한산성의 사졸로 나누어 지키게 했다는 것은 청목령 대책 근처에 북한산성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로왕의 대책 설치하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설치였던 것이다.

사료 H 무령왕 7년의 기사도 방어를 위한 목적의 설치이다. 고목성의 남쪽에 두 개의 책을 설치하는 것인데 고목성은 무령왕 3년에도 나오고 있는데 말갈이 마수책을 불 지르고 고목성을 공격하였다⁸⁹⁾고 한다. 고목성은 말갈과 관련이 있는 성으로 백제가 군사 5000명을 보내 물리쳤다는 것은 성의 크기도 크고, 5000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하여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백제에게 방어상 매우 중요한 성이라는 것이다. 6년 7월에도 말갈이 쳐들어와서 고목성을 깨뜨리고 6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86)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蓋鹵王 15년(469) 가을 8월. “遣將侵高句麗南鄙”

87)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濫祚王 10년(B.C.9) 겨울 10월. “我軍敗績 依青木山自保”

88)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4년(395) 겨울 11월. “王欲報淚水之役 親帥兵七千 過漢水次於青木嶺下”

89)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武寧王 3년(503) 가을 9월. “靺鞨燒馬首柵 進攻高木城 王遣兵五千擊退之”

는⁹⁰⁾ 기사 역시 고목성은 말갈과 백제의 접경지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잡아간 인원 역시 다른 성에 비하면 많은 인원수로 큰 성이라는 것이다. 고목성에 두 책을 설치하는 것은 말갈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목성 - 두 책 - 장령성을 쌓아 말갈을 철저하게 방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료 I의 성왕 4년의 사정책을 세운 것은 웅진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사정책을 세우기 전에 웅진성을 먼저 수리하였다는 것은 웅진성의 방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정책을 세운 것이다. 성왕 3년에 백제는 신라와는 사신을 교환하여⁹¹⁾ 우호관계를 형성하였다. 백제는 사비로 천도하기 전으로 이 당시 고구려와는 적대관계였다. 즉, 웅진성 방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정책을 세운 것이다.

한편 백제는 중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하고자 하였다. 사료 D-2는 직접적으로 독산과 구천에 책을 세워 낙랑과의 통로를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온조왕은 책을 세워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온조왕 13년 여름 5월 기사를 보면 왕은 신하에게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영토를 침략하여 편한 날이 적다.”고 하였다.⁹²⁾ 즉, 백제는 낙랑을 차단하기 위해 책을 설치한 것이다.

사료 G는 동성왕 23년에 탄현에 목책을 설치한 것이다. 이는 신라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당시 백제는 신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동성왕 16년에는 백제가 신라를 도와 견아성의 고구려 포위를 풀어주고⁹³⁾ 17년에는 동성왕이 신라에

90)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武寧王 6년(506) 가을 7월. “靺鞨來侵 破高木城 殺虜六百餘人”

91)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聖王 3년(525) 봄 2월. “與新羅交聘.”

92)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3년(B.C.6) 여름 5월.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疆境 少有寧日”

93)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16년(494) 가을 7월. “高句麗與新羅戰 薩水之原 新羅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圍之 王遣兵三千 救援圍”

구원을 요청하자 신라왕이 장군 덕지에게 명하여 구원하게 하여 고구려 병사가 물러났다고 한다.⁹⁴⁾ 두 나라의 사이가 적대관계가 아님에도 탄현에⁹⁵⁾ 목책을 설치한 것은 지리적인 중요성, 즉 교통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탄현(炭峴)은 의자왕 16년(656)조에 의하면 기벌포와 함께 백제의 중요한 요충지로 나온다.⁹⁶⁾ 홍수가 말하길 ‘탄현은 우리나라의 요충지여서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으로 막아도 1만 명이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요충지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에 힘써야 한다. 탄현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가 처음 설치한 목책이다. 무엇보다 웅진의 방어가 중요했을 것이고 이를 위한 교통로의 차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앞의 기사 C의 아신왕 7년 8월에 고구려를 치기 위해 한산 북책에 이른 기사를 통해서도 교통로 차단 of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아신왕이 한산 북책에 이른 것은 이 목책이 도성의 외곽지대를 방어하는 동시에 교통로의 통제를 위한 것이다.⁹⁷⁾ 아신왕이 이끈 군영은 상당히 큰 규모였을 것이다. 백제는 진사왕 8년 가을 7월에 고구

94)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17년(495) 가을 8월. “高句麗來圍雉壤城 王遣使新羅請救 羅王命將軍德智 帥兵救之 麗兵退歸”

95) 탄현의 위치 비정에는 여러 설이 있다. 충남 금산군 금산면 천내리와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로 보는 설(大原利武, 1922, 88~90쪽),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삼거리와 서평리와의 사이에 있는 탄치(炭峙)로 보는 설(小田省吾, 1927, 194쪽), 부여 석성면 정각리(正覺里) 솟고개로 보는 설(今西龍, 1934, 266쪽), 대전 동구와 충북 옥천 군북면 경계의 식장산 마도령으로 보는 설(李丙燾, 1977, 401쪽), 완주군 운주면 신복리(薪伏里)와 삼거리(三巨里) 사이의 쑥고개로 보는 설(洪思俊, 1967, 67쪽; 전영래, 1982, 276~289쪽), 금산군 진산면(珍山面) 교촌리(校村里)의 솟고개로 보는 설(成周鐸, 1977, 29쪽)이 있다. 최근에는 신라군의 이동경로와 관련하여 웅진기 탄현책 설치와 사비기의 성충이 교통상의 요해지로 언급했던 탄현의 위치를 충남 금산군 진산면 방현(方峴)으로 보는 설도 있다.(이판섭, 앞의 논문, 2015, 257쪽)

96) 『삼국사기』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16년(656) 봄 3월. “若異國兵來 陸路不使過 沉峴 水軍不使入 伎伐浦之岸 舉其險隘以禦之 然後可也 王不省焉”

97) 황보경, 앞의 논문, 2016, 177쪽.

러에게 석현성 등 10여성을 함락당했고⁹⁸⁾ 10월에는 관미성을 함락당했다.⁹⁹⁾ 이후 즉위한 아신왕은 외삼촌 무(武)에게 관미성이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다며 관미성이 북쪽 변경의 요해지라 설명하면서 설욕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무가 병사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변경으로 갔다.¹⁰⁰⁾ 백제는 고구려와 대적하기 위해 비교적 큰 규모의 군사가 동원되었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아신왕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한산 북쪽에 목책에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간 것은 이곳이 고구려의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로라는 것이다. 보통 성은 군사적 기능과 함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하지만 책은 주요 길목을 차단하여 주변 성의 방어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통로의 차단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백제가 주요 길목에 책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로를 차단하여 요해지의 방어에 힘쓰고자 한 것이다.

둘째 영역의 표시이다. D-4의 온조왕 24년 기사는 책이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웅천책과 관련하여 13년 8월 기사에 백제가 강역을 구획할 때 남쪽으로는 웅천을 경계로 하였다고 하였다.¹⁰¹⁾ 이는 하천을 경계로 하였던 것으로 마한의 반응이 없었다. 이때는 단순히 강역을 구획하는 것으로 성이나 목책으로 경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웅천책의 설치에 마한의 영토 침입이 되는 것이었고 마한왕이 의리

98)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8년(392) 가을 7월.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來攻北鄙陷石峴等十餘城”

99)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8년(392) 겨울 10월. “高句麗攻拔關彌城”

100)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393) 가을 8월.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 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101)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3년(B.C.6) 8월. “遣使馬韓 告遷都 遂畫定疆場 北至溟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에 불합리함을 설명하자 왕이 부끄러워서 목책을 헐었다고 기록되었다. 8년의 기사에서 백제왕이 성과 책으로 요새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웅천책은 헐었다는 것은 마한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 분명하다. 이 당시 웅천책의 설치는 백제의 영역 표시였을 것이고, 이곳이 마한과 영역이 나누어지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백제와 마한과의 당시 관계는 우호관계였기 때문에 영역 표시한 목책을 마한왕이 지적하자 헐어버린 것이다.

목책의 설치 목적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백제본기」 목책 설치 기사

번호	시기	내용	목적	비고
1	온조왕 8년 7월	병산책 세움	방어	성을 쌓고 책을 세움
2	온조왕 11년 7월	독산과 구천의 책을 세움	방어	낙랑과의 통로 차단
3	온조왕 13년 7월	한산 아래 책을 세움	방어	위례성 민호 옮김
4	온조왕 24년 7월	웅천책 세움	강역 표시	
5	구수왕 4년 2월	사도성 옆 두 책 설치	방어	두 책의 거리가 인접
6	개로왕 15년 10월	청목령에 대책 설치	방어	고구려, 말갈 대비
7	동성왕 23년 7월	탄현에 책 설치	방어	신라 대비
8	무령왕 7년 5월	고목성 남쪽 두 책 세움	방어	말갈 대비
9	성왕 4년 10월	사정책 세움	방어	웅진성 방어

도기동 산성은 지금까지는 고구려가 재활용하여 남진하는 거점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되었다. 산성의 발굴 조사 결과 백제의 목책성을 재활용하여 목책을 세운 뒤 내

부에 점토로 다지고 목책 외면에 석축과 점토를 보강한 목책 도니성은 고구려의 성 축조 방식의 하나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남진 루트로서의 가치가 중요시되었다. 그렇지만 도기동 산성의 초축은 백제이다. 그렇다면 백제에 있어 도기동 산성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으로 요충지이다.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안성지역은 내륙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특히 안성천 일대는 한강과 금강수계권이 연결되어 남쪽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곳이자 반대로 남쪽에서 한강 이북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주요 길목이었다. 이는 고구려가 남진할 때 거점으로 이용한 이유에도 해당된다. 고구려의 보루는 교통로의 확보가 주목적이었으며 보급이나 공격을 위한 중간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¹⁰²⁾ 고구려 입장에서 도기동 산성은 남진의 거점이다. 남성골산성과 월평동산성은 웅진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도기동 산성은 최전방 관방유적을 한성과 연결시켜 주는 주요 거점이었다. 산성은 평택평야에서 안성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웅진으로 내려가는 군사 방어와 함께 거점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¹⁰³⁾

둘째, 도기동 산성은 구릉성으로 주변에 평야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수취체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주변 저장 수혈군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원형 수혈은 서울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이후 백제 영역인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특히 경기 서남부지역 용인과 화성을 중심으로 수계로는 안성천과 오산천을 중심으로 확인

102)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고구려연구회, 2001.

103) 양시은, 앞의 논문, 2021, 103~104쪽.

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¹⁰⁴⁾ 저장 수혈의 크기도 대체로 2.3~2.5m로 일정하게 도성뿐 아니라 지방에도 축조되었다는 것은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양상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경기 서남부의 안성천과 오산천 중심은 한성백제의 물류 유통의 중심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성시기 저장 수혈군은 근거리에 하천 1~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수계를 중심으로 물자의 유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표 3〉 백제 한성 시기 저장수혈군 유적 관련 유적의 편년에 따른 분포 빈도

편년	3C후반	4C전반	4C중반	4C후반	5C전반	5C중반	5C후반
저장 수혈군	0	7	14	17	17	15	6
관방 유적	3	4	7	10	7	7	7

* 김왕국, 「百濟 漢城期 貯藏施設 擴散의 動因-단면 플라스크형 저장수혈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6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3, 〈표 21〉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저장 수혈군 유적의 분포 시기를 보면 3세기 후반에는 보이지 않다가 4세기 전반에 7개가 보이고 있는데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보이는 것으로 외부에서 유입되어 조성되었다. 이때의 수혈은 취락 내 거주지 등과 함께 조성되었으며 규모가 크지 않아 취락 내의 부속시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 중반 14개, 후반 17개, 5세기 전반 17개, 중반 15개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성 백제기의 전성기로 이때 경기도 지역에 집중 조성되고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많이 출토된 유적들을 보면 용인 마북동

104) 이병훈, 「한성백제기 원형수혈의 기능에 관한 연구-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8쪽.

4유적(60기), 오산 내삼미동 유적군(192기), 안성 장원리 유적(50기)이 있는데 5세기 전반까지 활발히 운영되다 이후 5세기 후반에 그 개수가 감소되면서 이후에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백제의 한성 함락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성이 함락된 후에 유적의 분포가 17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은 웅진 함락으로 백제의 수취체계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도기동 산성은 남방진출을 위한 거점성이다. 이는 철기 유물 출토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제철은 낙랑·대방인들과 관련이 있다.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는 제철과 관련된 낙랑·대방 지역의 토기와 기와 제작기법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출신 장인들이 집단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안면 인근의 봉담면 당하리 I 유적에서도 낙랑계 토기와 송풍관, 철 찌꺼기, 철광석 등이 발견되어 이곳에서도 낙랑계 주민들에 의한 제철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⁰⁵⁾ 백제 중양에서 화성지역에 대한 관심은 화성 요리 고분군의 금동관모와 식리 출토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4세기 후반 화성 요리 고분군 금동관모와 식리는 백제의 금속 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백제 중양에서 화성 재지 세력에게 사여한 것이다.¹⁰⁶⁾

철기류는 백제토기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저장 수혈이 증가하는 4세기 후반에 출토 빈도가 높다. 안성천에서 철기 출토량이 높은 곳은 안성 도기동 산성이다. 도기동 산성은 취락과 성곽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진위천 유역인 화성 길성리 토성과 소근산성에서는 많은 수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소근산성은 무기류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이 방어 시설과 관

105) 이남규·권오영·문동석, 앞의 논문, 2003, 126쪽.

106) 권오영, 「경기 남부 최강자가 묻혀있는 화성요리고분군」, 『요리 금동관 다시 깨어나다』, 화성시 역사박물관, 2020, 124쪽.

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4세기 중엽이 되면 오산천 유역에서도 철기 출토 비중이 증가하고, 5세기 후반이 되면 오산천 유역의 오산 내삼미동 취락에서 그 빈도가 급증한다. 이곳의 철기 출토 비율은 소근산성과 기안리를 제외하면 취락으로는 가장 많은 수취이다.¹⁰⁷⁾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 유역에서 철기 출토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이 방어상 중요한 요충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경기 남부권이¹⁰⁸⁾ 방어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이다. 제철기지에서 생산된 철은 각 거점의 관방 시설에 공급되어 철제품이 바로 유통되었는데 하천 및 강을 이용한 수운 형태로 공급되었을 것이다.¹⁰⁹⁾ 시기적으로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후반에 걸쳐 철기의 생산이 급증하는 것은 고구려에 의한 한성 함락과 그로 인한 백제의 수취체계 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07) 박경신, 앞의 논문, 2021, 56쪽.

108) 경기도를 북부,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눌 때 소구역권에서 경기 남부권은 안성천 분류,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안성천 남쪽지천이다. (박경신, 앞의 논문, 2021, 31쪽, <표 1>에서 경기 남부권만 발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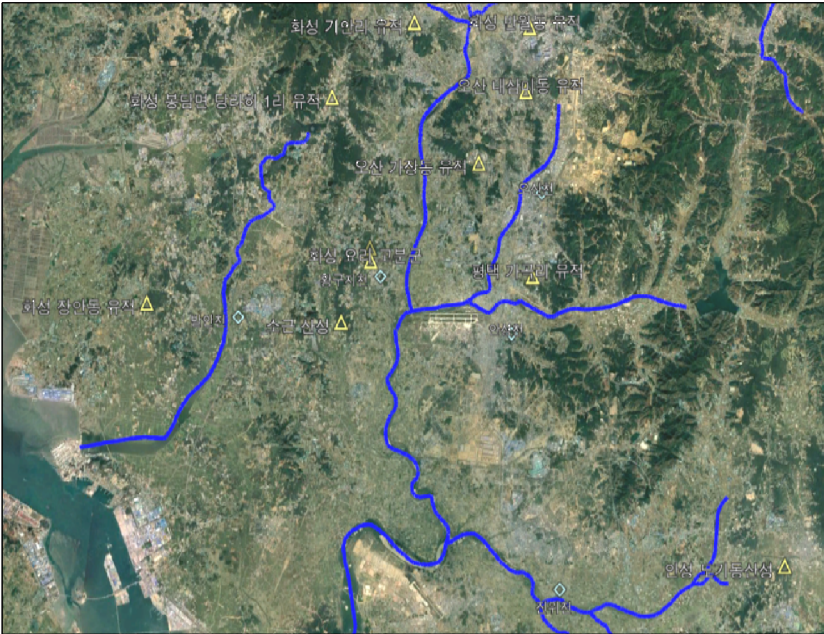
109) 정경화,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역 제철기지의 조성과 변화과정」, 『한국고고학보』 119, 한국고고학회, 2021, 118~121쪽.

〈그림 3〉 한성 시기 저장 수혈유적지



* 장수남, 앞의 논문, 2022, 130쪽, 〈그림 3〉에서 도기동 산성을 추가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그림 4〉 한성 시기 제철유적지



1. 화성 기안리 유적 2. 화성 길성리 토성 3. 화성 요리 고분군 4. 화성 봉담면 당하리 1리 유적 5. 화성 장안동 유적 6. 화성 반월동 유적 7. 소근 산성 8. 오산 내삼미동 유적 9. 오산 가장동 유적 10. 평택 가곡리 유적 11. 안성 도기동 산성

* 장수남, 앞의 논문, 2022, 126쪽, 〈그림 2〉에서 도기동 산성을 추가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제철 유적지의 공통된 특징은 크고 작은 하천을 끼고 있고 인근에 농경지가 많은 곳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곡리와 기안리 제철 유적뿐만 아니라 백제 한성시기의 제철 유적들은 모두 오산천, 진위천, 황구지천, 발안천, 안성천 유역에 본류천 또는 지천과 합류하는 충적평야의 구릉 사면에 입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수운 교통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백제는 기존의 마한 세력이 이용했던 루트를 이용한 것으로 탄천 수계까지 육로로 운송한 후 다시 수운으로 한성으로 운송하거나 오산천, 황구지천을 남류하여 진위천, 안성천으로 빠져나와 서해

연안 해로를 거쳐 한강 하류를 통해 한성까지 운송했을 것이다.¹¹⁰⁾ 안성천 유역에 위치한 도기동 산성은 거점의 관방시설로서 철제품이 공급되었을 것이다.

5. 맺음말

한성백제의 관방체계는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한강 이북의 관방체계는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 형성되었고,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특히 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도성의 방어뿐 아니라 백제가 남쪽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 및 지방 토착세력들의 반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강 이남의 관방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 백제 토기가 출토되어 어떤 형태로든 점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주요 교통로에 성을 배치하여 교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통제하여 관방체계를 형성하여 백제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셋째,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넷째, 물자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성천 유역 관방체계 중 하나인 도기동 산성의 축조 시기를 문헌사와 연결해 보면 근초고왕 28년(373)이 주목된다. 백제는 독산성민들의 신라 이동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다시 준비했을 것이고, 독산성이 신라와 근접한 곳이었다면 백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기동 산성의 축조 목적은 새롭게 지방 지배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

110) 장수남, 「백제 웅진시기 한강유역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4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128~129쪽.

었다. 성주가 3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한 거점성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길성리토성이 폐기와 독산성주의 투항으로 백제가 소근산성의 축조와 함께 새로운 지방지배의 거점성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에 있어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인 요충지로 웅진으로 내려가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둘째, 도기동 산성은 구릉성으로 주변에 평야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 서남부의 안성천과 오산천 중심으로 많은 저장 수혈군은 이곳이 한성 백제의 물류 유통지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경기 남부지역 주로 오산, 용인, 화성, 안성 지역은 한성시기의 중요 수취체계원으로 웅진시기에도 백제가 반드시 재건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셋째, 도기동 산성은 남방 진출을 위한 거점성이었다.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 유역에서 철기 출토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이 방어 상 중요한 요충지이자 남방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철기지에서 생산된 철은 각 거점의 관방 시설에 공급되어 철제품이 바로 유통되었는데, 안성천 유역에 위치한 도기동 산성은 거점 관방시설로서 철제품이 공급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저서 및 보고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성곽』, 2003.

<http://uci.or.kr/G901:A-0006073733>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36-1번지 유적』, 2016.

<http://uci.or.kr/G901:A-0006601091>

기남문화재연구원, 『安城 道基洞 山城』, 2018.

<http://uci.or.kr/G901:A-0010780321>

기남문화재연구원, 『安城 道基洞 古墳群』, 2019.

누리고고학연구소, 『안성 도기동 산18번지 유적』, 2017.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1437979>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65번지 유적』, 2018.

세종대학교 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2016a.

세종대학교 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1-3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2016b.

한성백제 박물관, 『백제의 산성』, 2019.

한양문화재연구원, 『안성도기동산성-안성 도기동 산성(산57번지 일원)
유적 긴급발굴조사』, 2021.

<http://uci.or.kr/G901:A-0010780321>

2. 논문

강형웅, 「4세기 한성 백제 관방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http://uci.or.kr/G901:A-0005367133>

강형웅, 「4세기 한성 백제 관방체계 연구」,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발
표회 자료집』, 중부고고학회, 2008.

<http://uci.or.kr/I410-ECN-0102-2023-900-000978395>

김영관, 「웅진시대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과 영역」,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http://uci.or.kr/I410-ECN-0101-2020-911-000576392>

김왕국, 「百濟 漢城期 貯藏施設 擴散의 動因 - 단면 플라스크형 저장 수혈을 중심으로 -」, 『백제연구』 6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3.

<http://uci.or.kr/I410-ECN-0102-2016-910-000797126>

김진영,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 渤海研究』 58, 고구려발해학회, 2017.

박경신, 「안성천 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마한 세력의 동향」, 『고고학』 20-3, 중부고고학회, 2021.

<http://uci.or.kr/G901:A-0010569303>

서정일, 「도기동산성 성벽구조에 대한 재고(再考)」, 『안성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 학술심포지엄 -백제와 고구려의 만남』, 안성시·기남문화재연구원, 2020.

서정일, 「안성 도기동 산성의 조사성과와 과제」, 『안성 도기동 산성의 보존과 활용』, 안성시·별터건축사사무소·기남문화재연구원, 2021.

신광철, 「아차산 보루군의 변천사와 고구려 남진경영」, 『고구려발해사 연구』 63, 고구려발해학회, 2019.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고구려연구회, 2021.

<http://uci.or.kr/G901:A-0002190629>

심광주, 「漢城時期 百濟山城」, 『고고학』 3-1, 서울경기고고학회, 2004.

<http://uci.or.kr/G901:A-0002192511>

심광주,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고구려발해연구』 20, 고구려발해학회, 2005.

<http://uci.or.kr/G901:A-0002190919>

심정현, 「신라한예의 성격과 경기 이남 고구려의 관방시설」, 『역사학연구』 84, 호남사학회, 2021.

<http://uci.or.kr/G901:A-0010575221>

- 양시은, 「안성 도기동 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중원문화연구』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21.
<http://uci.or.kr/G901:A-0010599099>
- 오강석, 『百濟 漢城期 城郭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http://uci.or.kr/G901:A-0005341623>
- 오강석, 「백제 한성기 관방체계 검토」, 『선사와 고대』 26, 한국고대학회, 2007.
<http://uci.or.kr/G901:A-0002373229>
- 윤성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군사』 1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http://uci.or.kr/I410-ECN-0101-2019-390-000577626>
- 윤성호, 「고구려의 남진의 흔적,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고구려와 한강』, 2020.
- 이남규 · 권오영 · 문동석, 「경기 남부 백제유적의 분포양상과 역사적 의미」, 『백제연구』 4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http://uci.or.kr/G901:A-0001948722>
- 이부오, 「3세기 후반 4세기 초 백제의 마한 진출과 熊川 주변 세력」, 『한국고대사탐구』 28, 한국고대사 탐구학회, 2018.
- 이승우,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의 성곽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 이승우, 양시은,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 관방체계 연구」, 『고조선 단군학』 49, 고조선단군학회, 2022.
<http://uci.or.kr/G901:A-0011034463>
- 이판섭, 「삼국시대 산성의 감시반경(監視半徑)에 대하여 : 삼국시대 산성 배치의 체계성 검토를 위한 예비작업」, 『호서고고학』 15, 호서고고학회, 2006.
<http://uci.or.kr/G901:A-0003206869>
- 이판섭, 『百濟 交通路의 考古學的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 2015.
<http://uci.or.kr/G901:A-0005910490>

- 이병훈, 「한성백제기 원형수혈의 기능에 관한 연구-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http://uci.or.kr/G901:A-0005517489>
- 장수남, 「백제 웅진시기 한강유역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4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http://uci.or.kr/G901:A-0011027780>
- 장종진,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部曲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탐구』 4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 정경화, 「원삼국~백제한성기중부지역 제철기지의 조성과정과 변화과정」, 『한국고고학보』 119, 한국고고학회, 2021.
- 황보 경, 「삼국시대 木柵에 대한 考察」, 『白山學報』 106, 백산학회, 2016.
<http://uci.or.kr/G901:A-0008049986>
- 황보 경,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5, 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17.
<http://uci.or.kr/G901:A-0008231083>
- 황보 경, 「3~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산성」, 『東洋學』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Abstract)

Baekje's Gwanbang System and Dogi-dong Fortress

Jang, Su-nam

The main argument until the present day is that the fortress in Dogi-dong was recycled by Baekje in the mid-to-late 4th century while advancing south after Goguryeo's capture of Hanseong. This article attempted to examine why Dogi-dong Fortress was built from the perspective of Baekje history, and the role and value of the fortress from the perspective of Baekje. The initial construction of Dogi-dong Fortress was aimed at securing and defending transportation routes. In the 28th year of King Geunchogo (373), the fortress was built to defend the area due to the migration of Doksan people to Silla. Dogi-dong Fortress served as a regional hub as it had residential and storage facilities around it as well as geographical advantages. Goguryeo also recycled the fortress because it served the function of a transportation hub and a base. In Baekje, Dogi-dong Fortress not only had an economic value as it was located in the surrounding plains with hilly areas but it also fulfilled defensive functions, storage facilities centered on Anseongcheon Stream and Osancheon Stream, said that this area was the center of logistics and distribution of Hanseong Baekje. And the excavation of iron around Dogidongsanseong Fortress indicates that this area was an important defense point. Dogi-dong Fortress served as a base equipped with fortress + residential + storage facilities as well as fulfilling defense functions.

Keywords : Dogi-dong Fortress, Gwanban System, Transportation Road, Base, the first period of construction, Defense, Economic Advantage

